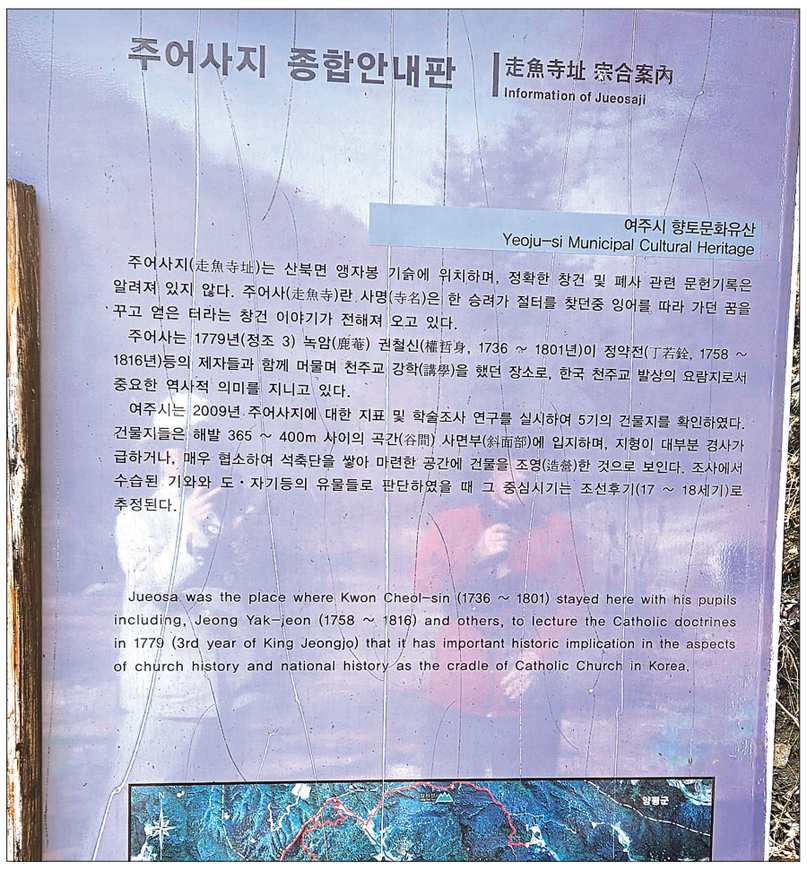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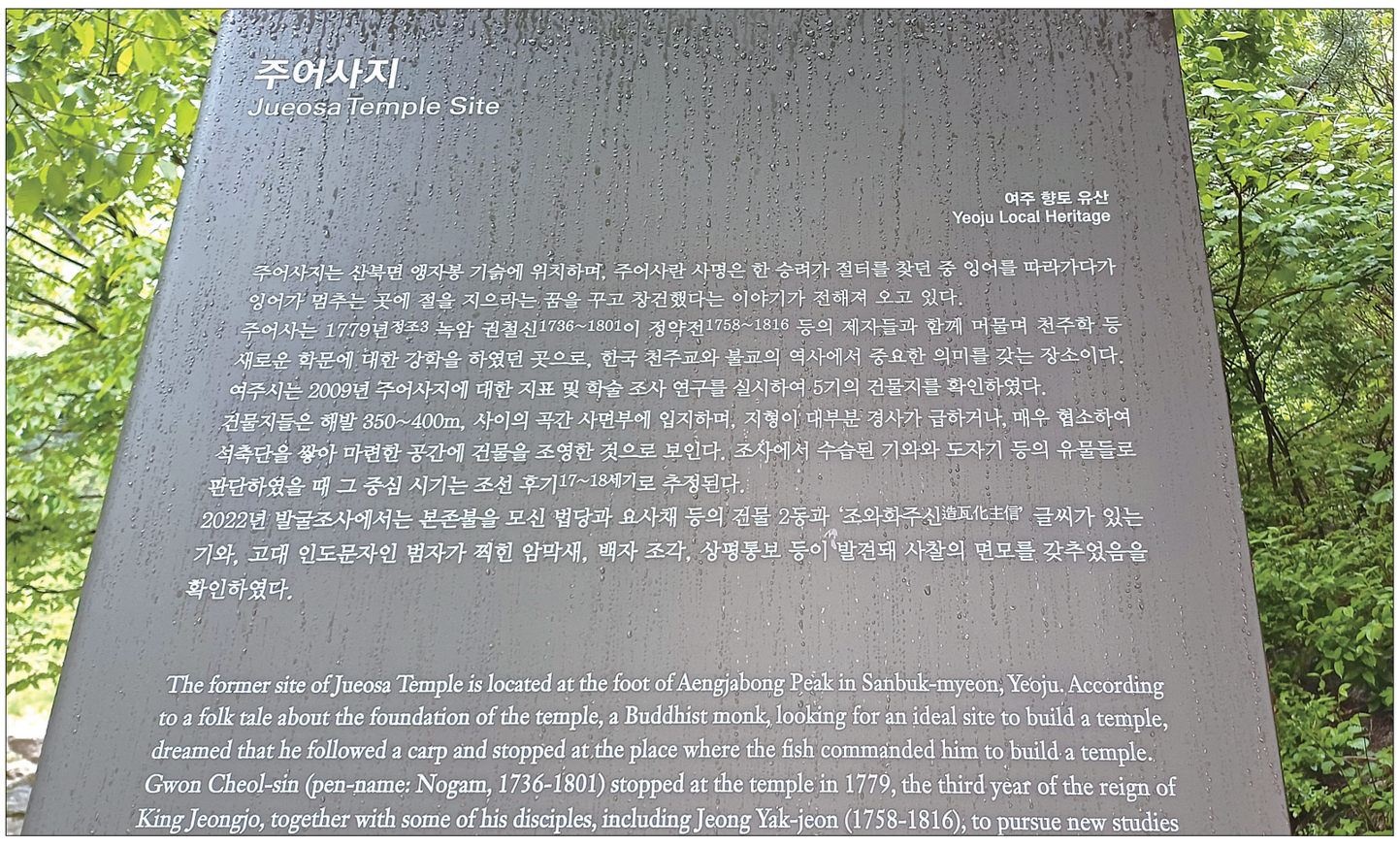
‘역사 왜곡’ 주어사지 안내판 15년 만에 바로잡다





기존 주어사지 안내판에는 ‘한국 천주교 발상 요람지’ ‘천주교 강학 장소’ 등 천주교 관련 서술만 부각돼 있었지만(사진 왼쪽), 새 안내판에는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가 함께 서술되고 주어사의 불교사적 정체성을 반영한 문구도 추가됐다.

비구니회 · 여주시 수차례 논의 거쳐
안내판 문구 수정하고 현장 재설치
불교 · 천주교 역사 간직한 공공성지
7월 11일, 안내판 앞에서 기념행사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가 2023년 12월 6일 개최한 ‘주어사지 보존 관리방안’ 학술세미나.


전국비구니회는 2024년 4월 19일 주어사지 현장 답사를 계기로 안내판 수정 절차에 돌입했다.


2024년 8월 13일에는 여주시청을 방문해 안내판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주어사지 안내판이 재설치된 후 금해 스님, 이병두 원장, 민순의 연구위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

천주학을 공부하던 유학자를 보호하다 폐사된 여주 주어사지에 15년간 설치돼 있던 역사 왜곡 종합안내판이 불교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수정·재설치됐다. 기존 안내판에는 ‘한국 천주교 발상 요람지’ ‘천주교 강학 장소’ 등 천주교 관련 서술만 부각돼 있었지만, 새 안내판에는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가 함께 반영됐다. 그동안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의 뜻깊은 결실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여주시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사찰의 오랜 역사를 배제하고 잘못된 역사를 전하고 있던 주어사지 종합안내판을 재설치하는 소중한 결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국비구니회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주어사와 천진암이 천주교 성지로 둔갑되고, 그 과정에서 불교 역사가 철저히 배제된 현실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잊혀진 불교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에는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하남사암연합회, 아리담문화원 등과 함께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주어사지의 불교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공부모임과 현장답사, 좌담회, 포럼 등을 이어왔다.

안내판 수정 작업은 2024년 4월 19일, 전국비구니회의 주어사지 현장 답사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현장에서 기존 안내판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한 뒤, 회장 광용 스님과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즉각 수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등과 ‘임시 모임’을 구성해 자료 수집과 전문가 자문을 병행했다. 수차례 논의와 문서 검토 끝에 2024년 7월 말 여주시청에 공문을 제출했고, 8월 13일에는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면담도 진행했다.

행정 절차상 작은 글자 하나 바꾸는 일조차 쉽지 않았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 새로운 계기와 토대를 마련한다’는 일념으로 흔들림 없이 활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2024년 12월 말, 여주시청으로부터 안내판을 수정·재설치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고, 최근 새 안내판이 현장에 세워졌다.

비구니회가 제안한 내용 전부가 반영되진 않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주어사의 불교사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 기존 문구인 ‘정확한 창건 및 폐사에 대한 문헌 기록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내용은 새 안내판에서 보완됐다. 2022~2023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의 주어사지 정밀 발굴조사에서 본존불을 모신 법당과 요사채로 추정되는 건물터 2동, ‘조와화주신(造瓦化主信)’ 명문 기와, 범자(梵字)가 찍힌 암막새, 백자 조각, 상평통보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안내판에는 해당 사실을 추가 명시해 주어사가 사찰터임을 분명히 했다.

또 기존에 ‘1779년(정조 3) 녹암 권철신과 제자들이 머물며 천주교 강학을 했던 장소로, 한국 천주교 발상의 요람지’라고 천주교 위주의 역사만 담고 있던 문구는 ‘1779년 녹암 권철신이 정약전 등 제자들과 함께 천주학 등 새로운 학문을 강학한 장소이며, 한국 천주교와 불교 역사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수정됐다. 불교와 천주교 등 다양한 역사를 간직한 공공 성지로 거듭난 셈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천주교만의 왜곡된 역사가 담긴 종합안내판은 오랜 시간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해 퍼져 나가면서, 이를 접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공식적인 역사처럼 인식돼 왔다”며 “그럼 결국 진정한 역사는 점차 잊히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첫걸음이자, 앞으로 더 많은 성과로 이어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7월 11일 주어사지 안내판 앞에서 종합안내판 수정·재설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주어사지, 역사를 다시 세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회장 광용 스님 인사말에 이어 주어사지에 대한 전국비구니회 활동(수석부회장 수경 스님)과 종합안내판 수정·설치 의의(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장 송탁 스님), 조선 사회 속 불교의 흐름(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주어사지 스님들의 용기와 자비실천(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등이 발표된다.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달라이라마 친견 및 남인도 아잔타석굴 순례 9일
10월31일 출발~11월08일 도착(9일 일정)
남인도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산치대탑등을 순례하고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일정입니다.
■ 일정: 인천-델리-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산치대탑-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달라이라마 친견 및인도성지순례 12일
10월28일 출발~11월08일 도착(12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9월10일 출발~9월15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일정: 인천-북경-대동-운강석굴,화엄사-현공사-오대산 5대 순례-북경-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23일~30일(6박8일)
■ 일정: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429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7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0일~10월16일
■ 일정: 인천-서안-법문사(부처님진신사리)-맥적산석굴-난주 병령사석굴-가욕관-돈황석굴-서안-인천
▶ 동참금 : 259만원